

일본, 화섬생산 회복세 반전

94년 0.9% 증가 176만4482톤 ... 나일론장섬유 5.5% 감소

일본 화학섬유협회가 집계한 94년의 화학섬유 수급현황에 따르면, 생산은 176만4482 톤으로 93년 대비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화학섬유 생산현황		(단위 : M/T, %)		
구 분		1993	1994	증감률
셀룰로스	필라멘트	36,440	30,774	▽15.5
	스테플	160,126	138,979	▽13.2
	비스코스	196,566	169,753	▽13.6
	퀴브라	21,682	22,306	2.9
	아세테이트	88,244	105,314	19.3
	계	306,492	297,373	▽3.0
합성섬유	비닐론	38,256	40,078	4.8
	나일론	239,647	226,508	▽5.5
	비닐덴	2,704	2,140	▽20.9
	아크릴	355,275	379,729	6.9
	PVC	4,009	3,872	▽3.4
	폴리에스터장섬유	423,980	425,576	0.4
유기	폴리에스터단섬유	292,489	304,110	4.0
	P E	2,550	2,306	▽9.6
	P P	78,090	77,763	▽0.4
	기타	5,045	5,027	▽0.4
	계	1,442,045	1,467,109	1.7
	합계	1,748,537	1,764,482	0.9

주요 합섬중 아크릴단섬유와 폴리에스터단섬유는 수출호조로 증가, 폴리에스터장섬유는 의류용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면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일론은 타이어코드 등의 부진으로 4년연속 마이너스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고, 94년 일본의 화섬생산은 완만한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6월부터 증가세로 반전됐다.

폴리에스터는 방적용이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비방적용이 견조한 증가를 보였고, 원면수출도 호조를 보여 30만4110톤으로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에스터장섬유는 주용도인 의류용의 수요가 회복세로 반전, 42만5576톤 0.4%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산업용·의류용 모두 회복이 더딘 나일론장섬유는 21만2770톤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셀룰로스계는 Unitica의 레이온 공장폐쇄로 전체적으로는 3.0% 감소한 29만737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1995/3/20>